

중소·삼성전자 협력 소재·부품 국산화 확산

1호 기업 'SBB테크' 로봇커피머신 선보
日 생산·공급 '하모닉 감속기' 양산 성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여의도 본회에서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1호 기업으로 선정된 SBB테크의 로봇커피머신 시연 행사를 가졌다.

SBB테크는 일본에서 생산·공급되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기술로 양산에 성공한 기업이다.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하모닉 감속기는 기어를 활용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품으로 가볍고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해 고정밀 로봇의 움직임 조절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조·생산한다.

SBB테크는 하모닉 감속기의 주요부품 및 감속기조립의 주요공정을 혁신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조라인을 구현하고자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신청해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SBB테크는 수년간을 볼 베어링 개발에 매진했다. 이후 LCD 및 반도체 라인에 제품을 적용하면서 로봇 자동화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당시 로봇 분야에 핵심 부품인 감속기의 중요성을 인지했으나 국내는 아직 일본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독점력이 높았다. 류재완 SBB테크 대표기 국산화를 도전한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이다.

품질 개선도 대폭 향상시켰다. SBB테크는 자체적으로 로봇을 제작해 신뢰성을 검증시켰다. 또한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품질 개선을 실시하는 등 현재 일본산 제품 보다 90% 이상의 퍼포먼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BB는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술성 평가를 신청한다. 이 후 평가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일본의 수출 대응에 마련된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중기중앙회 1층 로비에 전시된 SBB테크의 로봇커피머신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중앙회, 삼성전자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에 연계해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삼성전자 전문 멘토를 투입해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날 시연 행사에서 선보인 SBB테크의 로봇커피머신은 사람이 주문 버튼을 누르면 로봇팔이 추출된 커피를 컵에 담아 주문한 사람 앞으로 컵을 이동시켜주는 장치로서 하모닉 감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로봇팔의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인 장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로봇커피머신 시연을 통해 SBB테크 하모닉 감속기의 뛰어난 수준을 알 수 있었다”며 “중기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SBB테크와 같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SBB테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기술력을 극찬한 기업으로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임직원들에게 “수출규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에스비비로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품질의 공적 인증 절차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SBB테크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연계해 내년 2월까지 스마트공장 1단계를 구축하고, 연말까지 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연이어 진행할 계획이다.

나기호 기자 nakh@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서 SS B테크의 로봇커피머신 시연 행사를 관계자들과 지켜보고 있다.

중소중앙회 SBB테크 로봇커피머신 ‘시연’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서 SBB테크의 로봇커피머신 시연 행사를 가졌다.

SBB테크는 일본에서 생산·공급되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기술로 양산하는데 성공한 제조업체다. 하모닉 감속기는 기어를 활용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품으로 가볍고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하고 정밀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SBB테크의 로봇커피 머신은 사람이 주문 버튼을 누르면 로봇팔이 추출된 커피를 컵에 담아 주문한 사람 앞으로 컵을

이동시켜주는 장치로서 하모닉 감속기를 통해 부드러운 로봇팔의 움직임을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인 장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로봇커피머신 시연을 통해 SBB테크 하모닉 감속기의 뛰어난 수준을 알 수 있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SBB테크와 같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들에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나경 기자 nakyong1112@ekn.kr

대기업이 개발자금 지원... 中企제품 첫선

중기중앙회, 로봇커피머신 시연회
삼성전자와 ‘소·부·장’ 국산화 협업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3(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서 (주)SBB테크의 로봇커피머신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SBB테크는 일본에서 생산·공급되는 하모닉 감속기(기어를 활용해 속도를 떨어뜨리는 부품)를 국내 기술로 양산에 성공한 바 있다. 이에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1호 기업으로도 선정됐었다.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기중앙회와 삼성전자가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연계, 유망 중소기업에 구축비를 지원하고 전문 멘토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날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유망 중소기업들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1층 로비에 전시된 로봇테크의 로봇커피머신이 만든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제공=중소기업중앙회

대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성록 기자